

# 恨과 허무주의 통한 식민지정서 淨化

## 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5 - 김소월의 「진달래꽃」

오세영

서울대 교수·국문학

김소월의 시집은 해방 이후 수없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시인의 생존 시에 상재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진달래꽃」 하나뿐이다. 따라서 「진달래꽃」 이외의 다른 소월의 시집들은 그의 사후 이를 현대맞춤법으로 고쳤거나 그의 스승인 金岸曙가 개작했거나 혹은 기타의 작품들을 증보하여 다시 출판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월의 시집이 후에 증보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작품들 가운데에는 이미 시단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달래꽃」에 묶이지 않고 누락된 것들, 이 시집의 출간 이후 발표된 것들, 그리고 사후에 발견된 그의 유작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낭인의 봄」(「창조」 5호 1920. 3) 「舊面」(「동아일보」 1921. 6. 8), 「옷과 밥과 자유」(「동아일보」 1925. 1) 등의 작품들은 「진달래꽃」 상재 이전에 발표된 것들이지만 이 시집에 수록되지 않았고 「팔베개의 노래」(「가면」 1927. 7), 「돈타령」(「삼천리」 1934. 8), 「삼수갑산」(「신인문학」 1934. 11) 등의 작품들은 「진달래꽃」 상재 이후에 발표되었으므로 이 시집에 수록될 수 없었다. 그의 사후에 발견된 유작으로는 1939년 6월호에서 동년 12월호까지 「여성」지에 연재된 「박넝쿨타령」, 「기억」 등 11편과 1977년 11월호 「문학사상」지에 발표된 「인중」, 「무제」 등 29편의 창작시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한편 「님의 말씀」, 「마른 강 두덕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보섭 대일 땅이 있었다면」 등 61편은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고 「진달래꽃」에 직접 수록된 작품들에 해당한다.

「진달래꽃」은 1925년 12월 賣文社에서 발행하여 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총판한 素月 金廷滉의 유일한 창작 시집이다. 총 234면의 지면에 서문이라든가 발문 및 해설과 같은 따위의 산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인의 약력소개까지도 일체 배제한 채 오직 127편의 순수 시작품만을 수록한 이 단순한 시집이 오늘날 이처럼 국민적 공감 속에서 회자되리라는 것은 소수의 독자를 제외하곤 출간 당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학의 전문적인 독자나 혹은 당대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 시집이 민족문학의 한 봉우리로 우리 문학사에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순수독자 혹은 민중 독자

들의 가슴을 남모르게 울려 저변에서부터 우리의 민족혼을 일깨워 줄 수 있었던 그 시의 힘때문이었다. 김소월의 문학은 실로 민중적인 정감과 국민적인 공감에 의해서 개화되었던 것이다. 시인 자신은 그와 같은 시의 힘을 어떤 산문(「詩魂」, 「개벽」 59호)에서 ‘시혼’이라는 말로 설명한 바 있다.

### 누구도 예측 못한 국민적 공감 형성

김소월은 1902년 8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公州 金氏 性燾의 장남으로 태어나 오산중학교를 다니던 1920년 「그리워」, 「夜의 雨滴」 등 5편의 시를 「창조」 2호에 발표함으로써 시단에 등장한 시인이다. 3·1운동의 여파로 五山中學校가 문을 닫자 그는 서울의 培材高普 4년에 편입하여 이 학교를 일년 후에 졸업한 뒤 도일, 東京商大에 잠시 적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關東大地震이 일어남으로써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자 고향에 돌아온 그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가업인 농사일을 거들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 짧은 생애에 있어서 그가 유일하게 사회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은 만년에 그의 처가인 龜城郡 南市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잠시 경영한 일이 전부였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의 삼남 金正浩의 술회에 의한다면 다량의 아편복용에 의한 자살인 것이 분명하다. 그가 왜 자살의 길을 택했는가 하는 사실 역시 아직은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그가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면서부터 습관적인 음주벽에 빠져 있었다는 점, 그의 스승인 안서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를 몹시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염세주의에서 기인한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 서정시인이 살다간 그의 시대와 삶의 이와같은 비극성은 그의 시에 여러가지 양태로 반영되어 민족적 한과 슬픔으로 승화된 위대한 민족문학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김소월에게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岸曙 金億, 南岡 李昇燾, 古堂 曹晚植 같은 선각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소월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 만난 스승들로서 소월의 문학과 인생, 나아가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준 분들이다. 다 알다시피 안서는 이미 1910년대 중반부터 문학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이 땅의 선구적인

시인의 약력까지도 일체 배제한 채

오직 127편의 순수 시작품만을

수룩한 이 단순한 시집이 오늘날

이처럼 국민적 공감 속에서

회자되리라는 것은 소수의 독자를

제외하곤 출간 당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 시집이

민족문학의 한 봉우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민족혼을

일깨우는 시의 힘때문이었다.

근대 시인인데 소월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는 이 학교의 교사로 재직중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소월의 문학적 재질을 빨리 발견하여 그를 훌륭한 시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다. 소월의 시창작을 지도한 것, 그를 문단에 소개시킨 것, 시집을 간행케 해준 것, 작품발표를 추천해 준 것, 사후에 그의 문학을 정리한 것 등은 모두 안서가 도맡아 한 일들이었다. 심지어 「진달래꽃」 수록 작품의 상당수가 그의 가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리라는 추리가 널리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인 것이다.

### 한과 슬픔으로 승화된 위대한 민족문학

남강은 소월의 조부와 절친한 사이였다. 따라서 두 분 사이의 교분은 두터웠으며 소월과 그의 숙부가 모두 오산학교를 다니게 된 인연이 거기 있었다. 당시 남강은 고매한 인품과 사상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감화를 주었는데 소월 역시 남강으로부터 큰 깨우침을 받았다. 고당도 당시 오산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었다. 소월이 고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신적, 혹은 사상적 영향을 입었는가는 그에게 현사한 시 「제이, 엠, 에스」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 시는 소월이 자살했던 1934년에 씌어진 것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고당에 대한 소월의 마음이 짐작만 아니라 만년에 처한 그의 정신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물론 「제이, 엠, 에스」란 「조만식」의 英文 이니셜이다.

달은 쇠끝 같은 지조가 튀어난듯/타듯하는



「진달래꽃」 초판본.

눈동자만이 유난히 빛나셨다./민족을 위하여는 더도 모르는 열정의 그 임//소박하신 풍채, 인자하신 옛날의 그 모양대로/그러나 아아 술과 계집과 이욕에 형클어져/15년에 허주한 나를/웬일로 그 당신님/맘속으로 찾으시오? 오늘 아침/아름답다 큰 사랑은 죽는 법 없어/기억되어 항상 내 가슴 속에 숨어 있어/미처 거르른 내 양심을 잠재우리/내가 괴로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시는 소월이 자살을 염두에 둘 만큼 육체와 정신이 피폐할대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씌어진 작품이다. 그는 말하자면 인생의 벼랑 앞에서 고당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새삼스럽게 성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고당이 위대한 민족주의자의 한 분이며 소월이 이를 자각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고당의 민족을 위한 삶에 비추어 자신이 영위하는 퇴폐적인 생활이 부끄럽다는 이 시의 고백이다. 이로 미루어 소월이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게 된 것 역시 이와같은 부끄러움때문이었을까 하는 추리가 가능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월의 내면화된 민족의식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이를 행동으로 맞서 싸울 힘과 용기가 부족했던 식민지 치하의 한 나약한 지식인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굴복하고 순종할 수도 없었을 때 그 앞에는 다만 죽음의 길이 보였을 것이다. 이상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상의 추구를 본업으로 삼는 시인이 그것을 순결한 가치로 지키고자 할 경우 어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소월이 가끔 면의 주재소에 끌려가 모욕을 받고 습작원고를 압수당했다는 후손들의 회고라든지 또 자살 직전의 그가 스승인 안서에게 띄운 편지에서 “산촌에 와서 10년 있는 동안에 산촌은 별로 변함이 없어 보여도 인사는 아주 글러진듯 하옵니다. 세기는 저를 버리고 혼자 앞서서 다라간 것 같사옵니다”고 고백한 그의 심정 등은 이와 같은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월이 만년에 무위도식하면서 세상을 혐오하고 자학에 빠져 통음하다가 드디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찌보면 순결한 이념을 지키고자한 식민지치하의 시인이 걸을 수 있는 한가지 길이 아니었을까 한다. 마치 자살의 결심을 굳히거나 한듯 소월이 “미쳐 거츠른 내 양심을 잠재우리/내 괴로운 이 세상 떠날 때까지”라고 진술했던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 소월은 순결한 이념지킨 식민지치하의 시인

조금 당돌하지만 「진달래 꽃」에 내면화된 소월의 시세계를 한 마디로 규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한’과 ‘허무주의’라는 말로 함축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루고 싶은 것, 또는 이루어야 할 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면서 또는 그 이념이 불가능한 데서 기인한 일종의 비애의 감정 혹은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비애의 감정으로만 함축시킬 수 없는 것은 여기에 그 이외의 여러 복잡한

이것도 모순되는 감정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절망, 미련, 원망, 자책 등은 이 비애의 감정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시인은 자신의 소월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절망이 만일 체념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한이 될 수 없다. 진실로 한이란 현실적으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못하고 그것에 끈질긴 집착을 갖는 데서 발생한다.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현실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소유할 수 없을 때 그는 ‘한’의 비애감과 더불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진달래 꽃」에 수록된 대표작 혹은 애송시들의 대부분—예컨대 「진달래 꽃」, 「초혼」, 「먼 후일」, 「개여울」, 「무덤」, 「님의 노래」, 「금잔디」—등이 한과 비애 그리고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기왕의 선학들이 이미 지적하였고 또 우리가 이들의 시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그러한 감정들과 무관한 듯한 그의 시들 즉 자연탐구적인 경향을 드러낸 시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외는 아니다. 가령 「산유화」,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살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또 지는 산”이든 “뜰에 반짝이는 금모래와 뒷문밖에 갈잎의 노래가 있는 강변”이든 그가 동경하는 자연은 현실의 저 건너에 있는 無爲 혹은 無常의 세계인 까닭에 허무주의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또 지는 산’과 ‘갈잎의 노래가 있는 강변’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는 않다. 항상 ‘저만큼’ 먼 거리에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슬퍼하는 시인의 마음이야말로 또한 ‘한’의 비애에 빠진 것이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해야 할 것인가.

「진달래 꽃」에서 이와같은 시인의 한과 허무주의는 사랑을 테마로 한 이별의 이야기로 형상화되어 있다. 달리 말해 그의 시에서 한과 허무주의는 사랑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연인과의 이별이라는 이시의 사랑의 테마가 단지 개인적 정사, 혹은 개인적 삶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실은 그가 살고 있던 당대의 민족적 현실이 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시적 형상화로 드러난 사랑의 상실과 여기서 연유되는 한 혹은 허무주의는 국권의 상실과 여기서 연유되는 한 혹은 허무주의의 문학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월은 그의 시에서 개인적 사랑의 이야기와 아울러 민족 혹은 국가라는 공동체적 사랑의 이야기를 시로 담았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간접적으로는 소월의 죽음에 주는 의미와 직접적으로는 그의 민족적 저항시의 창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저항시 창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령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

리의 보섭 대일 땅이 있었다면, 유작으로 발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종」과 같은 작품이 식민지 치하의 대표적인 저항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 형상화된 사랑은 국권상실에서 연유

소월의 시에서 그려진 님과의 이별, 사랑의 상실에서 기인된 한과 허무주의의 감정이 국민적 공감과 민족의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그의 시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시킨데 있었다. 소월의 「진달래 꽃」은 문학사적으로 소위 민요시라는 한 특별한 장르와 전통적 정서를 현대시에 접목시키는데도 큰 의의를 지녔지만 식민지 치하의 민족적 좌절감과 허무주의를 바로 그러한 감정으로 카타르시스하여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정신세계사의 돋보이는 책들

####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4,000원

####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러운 본질/최시림 옮김/3,500원

####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철한 인간 성찰/데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4,000원

#### □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집러 지음/김정우 옮김/3,200원

####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뤄 등 중국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외 지음/이효림 엮고 옮김/3,500원

####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 신의 뜰에서 놀며(상·하)

대자연과 인간의 존엄을 그린 미국 문단 거장의 장편소설/피터 매티센/김석희 옮김/각권 4,500원

#### □ 세계의 공동체마을들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는 16개국 공동체마을의 이념과 생활상/올리버 포피노 외/이천우 옮김/6,000원

####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외/황정민 옮김/7,500원

####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더 T. 스톨딩/정창영 옮김/7,000원

#### □ 달마

라즈니쉬가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강의, 해설한 달마어록/오소 라즈니쉬/이연화 옮김/7,500원

####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 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김종오 옮김/5,500원

####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4,500원

#### □ 나를 점쳐 본다

동서고금의 모든 방법으로 알아보는 나의 성격과 운명/다이어그램 그룹/정현숙 옮김/6,000원

####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제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 단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3,500원

#### □ 大東夷(전5권)

소설로 엮은 최초의 한민족 태고사. 민족의 자각을 드높인다/박문기 지음/각권 4,000원

####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8,500원

####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쉬는 秘典 《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의 문화/권태훈 지음/9,000원

#### □ 민족비전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 권태훈 엮고 감수/정재승 편저/6,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시 739-8791 정신세계 전문 「책방 정신세계」 741-7033 (통신판매회원제 운영)